

트렌토와 볼로냐 사례로 본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운동

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
최혁진

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

- 한국은 농협, 신협, 생협 등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음.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일반법의 규정이 없음.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불가능.
- 이탈리아는 일반법으로 협동조합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고,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됨.

Cooperanione Trentin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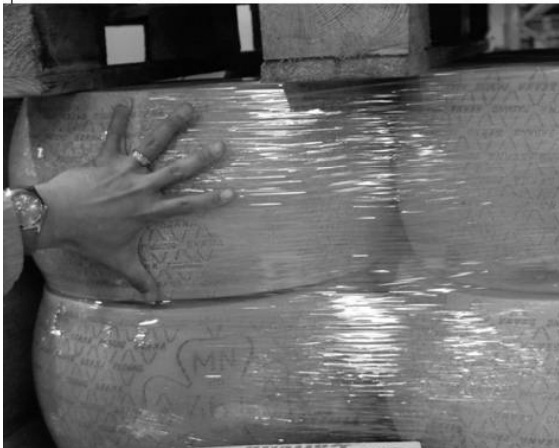
-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
- 189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
- 50만 인구 중 255,000명 조합원, 536개의 조합, 16,000명 종사자, 5,066명 임원, 연맹직원 174명, 24억 유로 매출(3조6천 억원)
- 소비자, 신용, 농업, 일자리-사회서비스로 분야를 나누고 2차 컨소시엄 다양.
- 매출액의 3% 회비납부. 시-재정자립 100%
- 연맹차원의 행정, 법률, 세금, 설립, 컨설팅 등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 유도





SAIT유통협동조합

- 1899년 설립-상호 공동 구매 및 판매
- 1970년 사회 환경의 변화 – 유통, 판매 외에 진열, 매장위치, 물류시스템, 정보관리, 마케팅 등 지원
- 106개 조합, 300여 개의 소규모 매장, 19개의 슈퍼형 매장, 500여개의 개인 매장,
- 38%점유율, 200km반경 물류공급, 1년에 2,800만개 주문소화, 주문 후 36시간 이내 배송
- 외부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



RISTO3식당협동조합

- 1979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설립
- 250여 개의 식당, 연간 600만식 판매
- 900명의 직원 중 조합원 직원은 350명(조합원 자격은 5년 종사 후, 240만원 출자)
- 자체 식재료 공급 체계 있음. 자발적 통제(ISO, HACCP 등). 민주적 운영(동유럽 이민여성 다수 채용).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지 않음.



VAL DI GRESTA 농업 협동조합

- 1900년 당근, 감자 경작으로 시작
- 1960년 이후 양배추, 호박, 무 등으로 확대
- 125가구, 가구당 평균 2만kg생산
- 2010년 40가구에서 80% 친환경농산물 생산함- 소득 증대 효과
- 해발 1,000m고지대 위치. 2007년 지방정부에서 학교 급식의 30%를 친환경으로 법제화, 고령화 문제, 젊은층이 농사를 안하는 문제



트렌토협동조합연맹총회

- 115회 정기 총회, 1차 단위조합, 2차 컨소시엄 대표 300여 명 참여
- 출자금에 따른 1-5개의 투표권이 있음
- 2008년 보다 전체 공급액이 7% 하락함. 농업 분야에
서 하락함.
- 청년층 일자리 문제 심각. 트렌토에서 350명 일자리
창출(서비스 분야)
- 550,000유로 아이티지진구호 기부(8억원)





LEGA COOP볼로냐

-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 볼림
- 130만 인구 중 100만이 조합원. 300여 개의 협동조합. 32억 유로 공급(4조8천 억원)
- 지역 내 상위 50개 기업 중 15개가 협동조합. 실업률이 3.1%.
- 관리시스템 컨설팅, 행정-세무-신용서비스, 연구소, 일에 대한 서비스 등
- 문화와 여가에 대한 사업도 큼(향후과제)



LA STRADA노숙인협동조합

- 1997년 MASIMO 설립.
- 노숙인을 일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.(스스로 설립)
- 식당, 잠자리 제공, 상담, 공원 청소 등
- 37명의 조합원. 협동조합은 일의 주인이지, 돈의 중심이 아니다.
- 청소 업무의 경우 - 볼로냐시가 직접 일을 주지 않고 '헤라'라는 기업에 주고 있음.



CONAPI –ALCE NERO

- 1980년 코나피(양봉)협동조합 설립 – 2000년 알체네로(파스타) 흡수하여 주식회사로 운영. 꿀, 잼, 친환경 과자 등 생산
- 이념 – 깨끗함(시설의 청결함. 미성년자 고용 안함. 성교육 철저. 세금 납부 철저. 생산자에게 적절한 금액 제공 등)
- 일본에 꿀 등 수출. 일본인 상주 직원 근무
- 이탈리아 꿀 생산의 30% 차지



LISANAMENTO주택협동조합

- 1884년 설립 126년의 역사. 1886년 costa지역에 160가 구 건축하여 공급.
- 현재 2천223개 주택 보유. 9천200명의 조합원(2,225 명의 월세자 관리)
- 월세300유로(일반800유로). 1년에 80가구 공급. 10년 주기로 월세 5-7% 인상.
- 최근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관점 시공
- 사회적 약자에게도 주택 공급함.(2가구씩)



결론을 대신하며

- 리스토3의 경험 : 전문직 분야의 일자리를 협동을 통하여 창출.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서비스로 250여 개 식당 운영
- 협동조합 간 협동 : 지역 내 대안 경제 형성. 트렌토 시 자급율 100%. 정부 중심의 보호된 시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보호된 시장 형성. 보호된 시장 속에서 자주관리생산협동, 워커즈콜렉티브의 실현 가능성

결론을 대신하며

- 사회적 기업 : 정부 중심의 인증이나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서,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. 창의적 상상력으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기업 필요함. 인증여부와 상관없이
- 협동조합은 임노동 관계 중심의 사회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물적 토대를 가질 수 있음. 협동 자본 형성.